

## 광주비엔날레 현장 3, '그 밖의 어떤 것-마이너리티'

제5회 광주비엔날레 현장 3 '그 밖의 어떤 것-마이너리티'가 광주 5·18자유공원에서 이 달 10일(금)에 개막된다. 이 전시는 '5·18민중항쟁'의 역사 광주를 재조명하고, 근대화와 산업화 논리에서 '그 밖의 어떤 것'으로 배제된 가치들을 현재의 문화적 코드로 접근하고자 한다.

전시는 기존 예술의 주된 소통방식인 작품과 관객 그리고 작가와 관객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작가와 관객이 함께 작품을 완성하고, 작품이 적극적으로 생활의 공간 속으로 찾아가는 것을 시도한다. 이러한 취지로 현장 '그 밖의 어떤 것-마이너리티'는 6개의 소주제 프로젝트 외에 특별 프로젝트 '다함께 놀자!!!'를 마련하였다. 특별 프로젝트는 'Art bus No. 17', '앗! 현장 3 버스다.', '영상 게릴라 현장 3', '박스 도시 차차차!!!'로 구성된다.

'Art bus No. 17'은 전시 참여 작가들이 광주 시내 버스와 '현장 3, 전용 셔틀 버스'를 미술매체로 적극 활용하여 '이동하는 예술작품'을 만들어 낸다. Art bus는 관객과 함께 전시 공간(5·18자유공원)과 광주 도심에 오가며, 일상에서 새로운 형태의 움직이는 예술을 생산해 낸다.

'앗! 현장 3 버스다.'는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와 현장 3을 잇는다. 작가들에 의해 작품으로 꾸며지는 이 버스는 전시장과 전시장을 연결함으로써 전시 공간 사이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관객들의 이동을 수월하게 하는 실용적인 예술 작품의 형태를 보여준다.

'영상 게릴라 현장 3'은 버스를 이용해 시민들을 찾아가는 문화 게릴라 프로젝트이다. 버스는 그 자체가 움직이는 예술작품으로 광주 시내를 순회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 - 아파트, 공원, 광주역, 시외버스 터미널, 충장로 등 - 에 도착한다. 그리고 준비된 영상을 주변 건물의 벽면에 투사하여 시민들과 이를 공유한다.

'박스 도시 차차차!!!'는 주민들 스스로 모아 온 재료와 전시장에 마련된 대형 종이 박스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그들의 미래 도시를 역사 광주의 도시 공간에서 함께 만들어 본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종이 도시 안에서 서로가 놀고 즐기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예술 프로그램이다. 박스 도시는 매일 매일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작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한다.

### 9월의 열사 추모일

1일	최종철(1981)	11일	박성호(1990), 오원진(1992), 김영자(1993)
2일	김병구(1990)	15일	김중하(1989), 김기훈(1990), 김준배(1997)
4일	서전근(1995)	18일	원태조(1990), 임종호(1994)
8일	최우혁(1987), 심광보(1990)	19일	이석구(1987)
9일	강현중(1989), 임혜란(1993), 이경동(1993)	21일	이형관(1997)
	김하영(1996)		